

투데이 칼럼

긴장 고조 우려되는 남북 연결도로 폭파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며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제안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별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역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에 설치한 가림막 뒤에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복규
논설위원

에서 헌법에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며 남북관계를 단절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남북 연결 육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관문점 등 4곳이 있다. 이 가운데 경의선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한 도로다. 동해선을 통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철목·레일 및 가르등 철거, 열차 보관소 해체 등을 통해 '허허벌판'이 돼 사실상 8월에 차단 작업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폭파는 남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폭파', '폭파쇼'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이날 3일과 9일, 10일 평양시 중

구 상공에 침범해 대북전단(빠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미한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는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외 관

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배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 측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난 뒤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부성 성명 발표 뒤 바로 한국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겨냥해 위협적인 수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 역대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같은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사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연구원이 구속됐다. 경찰은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2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의 공정 단계별 핵심 기술이다. 경찰은 이 기술을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최모 씨와 전 수석연구원 오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씨는 2020년 9월 2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에 회사를 세웠고 이후 반도체 기술자인 오씨가 여기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회사 자본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갖춘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1

년 3개월 만에 시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통상 4~5년 정도 걸리는 신제품 개발 기간을 삼성전자 기술을 빼돌려 활용하면서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에 유출된 반도체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43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기술자 한두 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핵심 인사가들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생산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의 피해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자 사기 2배 급증... "출처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오가던 안부 인사, 올해는 알 수 없는 연락처로 문자가 왔다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해 개인 정보나 돈을 빼가는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올해 당국이 탐지한 '문자 사기' 사건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사기도 늘었지만, 무자나 상품권 지급을 유도하는 유형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0배 넘게 확인됐다.

경찰은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열어보지 말고 전화번호는 연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모르는 문자가 사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했다.

카카오톡에 '보호나라' 채널

을 추가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면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를 할 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전에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주의를 기울였지만, 나도 모르는 새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상당이 필요할 경우에는 KISA가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으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쓰레기통"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템피의 물렛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유세 중 불법 이주자 관련 도표를 띄워놓고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라며 '기밀리 해리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콩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온 범죄 이민자 침입을 위해 국경을 해제하고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트럼프, 끊임없이 불평하는 78세 억만장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클라크스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키멀리 해리스 부통령 유세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 문제를 끊임없이 불평하는 78세 억만장자"라고 비난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